

글로벌 시대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와 유럽의
법 관련 종사자들과의 교류

연세대학교 법학과 0521178 성완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610070 이태훈

I. 들어가며

이번 Immersion Fieldtrip에 참여 계획을 세우고, 선발이 된 후 작년에 우리와 비슷한 주제로 활동한 팀들의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보고서를 훑어본 후 받은 인상은 Research 내용에 비하여 현지에서의 활동이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팀의 유럽 방문에서 중점을 둔 것은 “이곳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물론 한국에서, 그리고 귀국 후 다양한 자료를 통한 Research로 배경지식을 쌓는 것도 신경을 썼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작년에 이와 비슷한 주제로 이루어졌던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활동과 인터뷰에 초점을 두어서 작성할 바임을 밝힌다.

한국에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와 유럽의 법 관련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주제로 총 4가지의 활동을 기획하였다. 우리의 계획은 첫째, EU라는 거대한 조직체를 구성하는 정부기관 종사자와의 인터뷰, 둘째, 유럽 현지의 법과대학 학생 또는 교수와의 인터뷰, 셋째, 우리의 전공과 관련이 깊은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견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의 변호사 혹은 판사 등 법조인과의 인터뷰 등이었다. 우리는 정말 운 좋게도 이 계획들을 모두 실행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계획은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진행되었던 European Commission의 Cabinet of Vice President Maros Sefcovic (Inter-Institutional Relations and Administration)의 비서인 Zuzana Dutkova 양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두 번째 계획은 같은 달 26일 화요일 벨기에의 Universiteit Gent 법과대학 학생인 Pieter Van Roeyen 외 4명과의 만남을 통하여, 세 번째 계획은 같은 달 28일 목요일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 방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획은 같은 달 29일 금요일 파리의 White & Case LLP International Law Firm의 변호사인 Craig Steinberg 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행하였다.

II. Zuzana Dutkova 양 인터뷰



1.개요

European Commission은 Council, Parliament, European Court of Justice와 함께 유럽 연합의 주요한 기구중 하나이다. European Commission은 유럽연합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인 기구로서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팀은 EU Commssion의 Vice-president인 Maros Sefcovic 씨의 비서와의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Zuzana Dotkova와의 인터뷰를 계획한 이유는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글로벌 시대의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2.방문 및 만남의 과정

이번 브뤼셀 방문 학생으로 선정된 후 5월에 연세대학교 EU 센터의 주최로 열린 Maros Sefcovic 씨의 강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시간으로 인하여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다. 질문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강연이 끝난 직후 앞으로 나아가 Sefcovic 씨에게 악수를 청함과 동시에 정중하게 명함을 요구하였고, 그 후 이메일로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보았고 이번 여름 브뤼셀에 방문 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은 Sefcovic 씨는 친절하게 자신의 비서인 Zuzana Dutkova 양과의 만남을 친히 주선해주셨다. 약속은 이메일과 전화로 확정을 지었고, 브뤼셀에서 European Commission의 메인 건물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3. 인터뷰 내용

z : 주잔나 w : 완지 t : 태훈

z : 학생들이 European Commission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w : 네, European Commission에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벨기에에 처음 와본 것은 1996년이었으므로, 당시에는 European Commission이 없었을 것입니다.

z : 맞습니다. 당시에 European Commission이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왔는데,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EU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동유럽 10개 국가와 함께 EU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EU는 27개의 가입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곧 새로운 나라인 크로아티아를 참여국으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곧 우리는 28개의 가입국을 갖게 되는 것이겠지요.

w : 크로아티아는 현재 EU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z : 현재 크로아티아는 후보국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에 그들은 우리 EU에 가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로아티아는 서부 발칸지역의 나라들 중 하나이고, 서부 발칸지역의 나라들은 모두 EU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6,7개의 나라가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그들 또한 EU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EU는 가장 큰 경제통합구역(state block)이고, 이에 가입하는 것은 당사국에도 매우 큰 이익입니다. 따라서 유럽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EU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자 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t : 연세대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로스쿨에는 세계적으로 활동하고자하는 학

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EU와 남한이 FTA를 체결한 바 있으므로 법조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워졌고, 이에 양 당사국 간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있어서 한국의 젊은 로스쿨학생들은 한-EU간의 관계와 관련한 영역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예컨대, 언어나 태도등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z :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그들 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준비의 일환으로 유럽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w : 그렇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유럽의 큰 국가들 예컨대 독일이나 프랑스의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나 영어 중국어 또는 일어만큼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아시아국가에도 많은 유럽전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도 European center가 개관한 것은 2년 전 입니다. 저는 e-mail로 vice-president에게 질의한바 있는데 그는 저에게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에게 매우 모호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z : 예를 들어 만약 유럽연합국가의 국민이 유럽연합의 기구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두 가지의 유럽연합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 하나는 그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는 슬로바키아인데 슬로바키아어는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입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는 19가지입니다.

w : 이는 영어를 포함하는 것이겠지요?

z : 물론 영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또한 유럽연합의 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영어와 슬로바키아어의 조합을 구사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곳 브뤼셀에서 근무할 생각이라면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이곳에서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공식미팅에서는 프랑스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European Commission의 구성원들은 대개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프랑스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독일어도 매우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유럽연합의 가장 큰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습득하시고, 다른 유럽연합국의 언어들 중 하나를 습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의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언어들 마다 자격시험이 존재하는데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경우는 그 기준이 높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언어의 경우에는 완벽한 구사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 언어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European Commission은 번역서비스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해서 프랑스어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w : European Commission에는 아시아 관계 담당부서 또는 아프리카 관계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z :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EA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외교적 서비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문화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European Commission의 산하기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t : European Commission과 같은 유럽연합 기구에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z :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한 Traineeship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blue book'이라는 코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European Commission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Traineeship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연수생의 95%는 유럽연합국가의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또한 당신은 'EU Traineeship office'의 홈페이지에서 인턴쉽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국가의 언어를 두 가지 이상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당신은 Traineeship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내각의 5명의 의장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European Commission의 관리자들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급 인턴이므로 당신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시일 것입니다. 당신이 인턴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에 관심이 있나요?

w : 물론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부족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z : 슬로바키아어를 배우세요.

w : 객관적으로 슬로바키아어는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z : 물론 슬로바키아어는 제 모국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슬로바키아어는 어려운 문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언어 또한 어려울 텐데요.

w :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는 이번 봄 학기에 유럽법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학회에는 EU의 법제와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기구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능력 있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관련 문제를 물어보고자 하는 열정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vice-president께서 국제법과 유럽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과 당신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분과 당신은 전문가이기 때문이지요.

z : 첫 번째로 나는 당신의 대학에 유럽법과 관련한 수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w : 종종 연세대학교에서는 유럽법 수업이 개설되곤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유럽법 수업을 수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유럽법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z : 그렇군요. 만약 당신이 뛰어난 유럽법 변호사라면, 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업 또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유럽연합기구들이나 어디에서든지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스본 조약을 비롯하여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법제적 변화들로 인하여 유럽법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유능한 유럽법 변호사가 되기만 한다면 당신이 이곳에서 직업을 얻기는 쉬울 것입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는 유럽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이를 전공하고 있는 많은 법학도들이 있습니다. 유럽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유럽법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상법과 유럽법을 연계시켜서 전문적 식견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크로아티아 사이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업상의 조약들이 체결되어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

이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당신에게 열린 기회와 열린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직 유럽에는 유럽법과 상법을 연계한 분야에 있어서 거의 전문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법이나 국제상법의 분야는 소위 blue ocean이라고 사려됩니다. vice-president 역시 상법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는 이를 토대로 외교관을 지내셨습니다. vice-president는 현재 이 직분을 담당하기 전에는 슬로바키아의 외교부에 계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외교부의 일을 담당하면서 그는 EU와 관련된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슬로바키아의 총리는 그를 European Commissioner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를 볼 때, 그가 European Commissioner로 임명되는 데 있어서 그가 유럽법을 전공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European Commissioner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6년 동안 슬로바키아 외교부에 있으면서 그는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그가 다른 국가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w :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저에게 분위기(atmosphere)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z :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commission에 vice-president와 2년째 함께 있는데, 제가 매우 놀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수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commission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종종 컨설팅이나 조언자들과의 개인적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 만약 당신이 여러 곳에서 접촉을 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러 좋은 조언과 충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 분야에서의 분위기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겠지요.

w : 이번 질문은 법적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EU조약의 직접효와 간접효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EU헌법의 민주적 결함(democratic deficit)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중순 쯤에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진행할 세미나의 주제로 현재 고려중인 것은 European Court of Justice나 European commission과 같은 기구들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는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께서 저희에게 이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우리의 세미나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z :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세미나를 구상중인 것이라는 건가요?

w : 그렇습니다. 한시간정도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의 3주정도 전부터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z : 당신을 세미나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인가요?

w : 네,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z : 우리는 예전에 당신이 언급한 주제들과 관련한 세미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제가 당신에게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방대한 수준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리스본조약이나 민주적 결함에 관한 세미나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와 관련한 모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유럽과 관련하여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t : 저희가 드릴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유럽 사이의 국제적 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에 있는 변호사가 존재합니까?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근 미래에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z : 물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법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mmission에 하나 그리고 council에 하나 총 두 개의 법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의 부서는 수백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우리는 사건과 관계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특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따라서 각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는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 최근 유럽연합은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해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는 국제법에 특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국제법과 유럽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인 것이 되겠지요. 만약 당신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법, 국제상법, 유럽법에 대한 지식을 쌓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w :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한국의 로스쿨생이므로 한국법과 연계된 공부 또한 필요하겠지요?

z :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player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아시아 국가들과 상업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FTA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더욱 돈독한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은 당신이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당신이 유럽연합국의 언어를 2개 이상 구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w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현재의 당신의 모습을 갖추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현재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z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5년 동안 전공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재학중에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인턴쉽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턴쉽은 전세계에 있는 슬로바키아 대사관에 1달에서 2달 정도 머물면서 인턴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호주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슬로바키아에 돌아와서도 슬로바키아와 외국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인턴쉽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 외교부에서도 인턴으로 일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격시험에 통과하고 저는 슬로바키아 외교부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속해있던 곳은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뤼셀에 한 달에 한번정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슬로바키아에서 근무하고 난 뒤에 외국 대사관으로 파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뤼셀로 파견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과도 관련이 있었고 저 또한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의 상관은 vice-president 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European Commissioner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나는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약 8년에서 9년 동안 함께해왔습니다. 외교부에서

일하게 되면 4년 동안 다른 나라에 파견되고 그 후에는 다시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가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브뤼셀에 온 4년 후에는 슬로바키아로 돌아가서 외교부의 업무를 담당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으므로 저는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곳 Commission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주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어떻게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vice-president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또한 모스크바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럽법도 전공하였고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부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수많은 국가에서 외교관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행보입니다.

w : 인터넷에서 그가 아주 많은 학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z :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아직 젊습니다. 그는 이제 45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맡고 있는 부서는 사실 조금은 파분한 부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매우 좋은 협상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Commission과 Council 그리고 Parliament 사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Commission의 직원들과 관련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들의 연봉이나 복지와 관련한 문제들을 맡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w : 사실 저는 내년에 로스쿨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 후에는 3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데 도중에 이곳에서 인턴으로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드렸던 질문들을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군요.

z :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미나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해서요. 태훈,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z : 저는 현재 로스쿨 1학년생입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 또한 유럽법과 국제상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말해주신 정보는 저의 관심분야와 꽤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4.소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European Commission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Zuzana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미래 법조인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뻐다. 더 나아가 이는 앞으로 유럽에서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모호했던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인터뷰이기도 했다. Zuzana가 조언해준 바와 같이 유럽연합국의 언어를 기본적인 도구로서 갖추고, EU법, 국제상법과 국제관계법에 대한 공부를 심화시킨다면 앞으로 한-EU간의 증대되는 법적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III. Universiteit Gent 법과대학 학생들과의 만남



1. 개요

한·EU FTA, 한·미 FTA 등이 체결되면서 법률시장도 개방을 앞두고 있고, 이미 몇몇 세계적인 로펌들은 한국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향후 법률시장 개방 및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세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거래나 다국적 기업들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에게 외국의 법률가들과의 원활한 교류와 그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런 생각에 근거하여 우리 팀은 우리와 엄청난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EU의 로스쿨생들과의 교류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유럽의 미래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세계화 및 한국과 유럽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누고, 또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격동하고 있는 한국의 로스쿨제도와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유럽의 로스쿨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기획의 박차를 가하였다.

2. 연락 및 만남의 과정

성완지 학생이 EU센터 산하의 유럽법학회에 가입하면서 작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황선유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던 Universiteit Gent의 로스쿨 학생을 소개받게 되었다. E-mail을 통하여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간략하게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알리는 등 사전연락을 방문하기 4~5주 전에 하였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학생이 메일함을 잘 확인하지 않아서 유럽에 도착해서야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되었다. 장

소는 벨기에에서 직행기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Ghent였고, 단체 활동의 첫날 저녁에 우리가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작년에 인터뷰한 학생을 또 인터뷰하게 되어서 중복되는 것을 약간 걱정하였으나 질문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한 이번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하여 미래에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추진을 하였는데, 작년과 다르게 이 친구가 졸업 직전이라 시간적으로도 매우 여유가 있었고 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법대생 무려 4명을 더 데려와서 총 8명이 함께 유명한 벨기에의 맥주를 곁들여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분위기로 인터뷰와 교류를 나누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괜찮은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3. 인터뷰 내용 정리

Q1. 자신들에 대해 간단한 소개

Pieter Van Roeyen(이하 Pieter) : 나는 Pieter고, 올해까지 Universiteit Gent의 법대를 다녔다. Masters 과정의 2년차로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고, 얼마 전에 Trainee 변호사 일 자리를 구했으며 지금 막 프랑스로 같은 졸업반 친구들과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다. 유럽의 법대생들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길 보면 알겠지만 아주 많은 표본이 있으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Helena De Vylder(이하 Helena) : 나는 Pieter의 여자 친구이고, 역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다. 인권 쪽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Masters를 마치면서 영국으로 LL.M과정으로 진학할 예정이다.

Felix Eerens(이하 Felix) : 나는 Felix이고, 역시 같은 학년이며 Tax전문 변호사가 될 생각이다.

Jozefien Bauwens(이하 Jozefien) : 나는 Jozefien이고, 같은 학년이고 Felix의 여자 친구이다.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료사건 쪽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Ben Van Biesen(이하 Ben) : 나는 Ben이고, 역시 같은 학년에 있으며 민사법(Civil Law) 분야에 관심이 많다. 개인적으로 게임과 맥주를 좋아하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Q2. 법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벨기에의 법조인 양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Pieter : 나의 아버지와 삼촌 모두 변호사이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삼촌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법조인을 꿈꿨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벨기에에서 수준급의 법학교육을 자랑하는 겐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현재 졸업 직전이고, Trainee 변호사로 활동할 곳이 확정되어서 이제 졸업하고 곧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 때는 교수를 하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했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특히나 부동산(Real Estate)법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능통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Felix : 한국의 법조양성제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벨기에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학부 3년,

Master과정 2년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고 Trainee 변호사로써 3년을 활동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법대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기 힘든가라는 질문에) 법대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쉽다. 물론 최상위 로펌을 들어가려면 학점을 잘 받아야겠지만 대부분 학점이 높지 않아도 학업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해서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니다. Pieter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Trainee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Ph.D 과정을 제안 받고 진학하여 이수하고 교수가 되기도 한다. 나 역시 변호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였고, Tax 전문 변호사가 될 것이다.

Ben : 만약 나중에 벨기에에서 사업을 할 생각이면 Felix에게 꼭 연락을 하라. 난 아마도 민사사건 쪽에서 일할 것 같다. 3년간의 학부생활에선 교양과목이나 기본적인 법 전반에 대하여 배우고 2년간 Master과정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난 민사법(Civil Law)분야를 전공하였다.

Helen : 여기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나와 Jozefien은 Ghent 태생이고, 이 도시에서 자라고 공부를 해왔다. 학부에서 보낸 3년의 시간에서 난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3학년이었던 2010년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인권법에 대하여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평소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인권법에 대하여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석사를 마친 지금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영국으로 LL.M 학위를 위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Jozefien : 아쉽게도 나는 Felix나 Pieter처럼 아직 Trainee 변호사로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졸업까지 시간이 있어서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벨기에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을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서 변호사로써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르고, 또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00% 확실한 대답일진 모르겠지만 EU 국가 사이에서 인력의 교환은 매우 자유롭다. 하지만 벨기에의 변호사가 프랑스의 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고, 아마도 간단한 요건을 갖추면 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학위를 받아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Q3. 한국-EU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을 바라보는 시선

Pieter : 분명히 FTA로 인하여 교류가 증진하고 시장이 개방된다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벨기에에는 한국음식점이 없는데, 호주에서 교환학생을 하던 중 한국음식을 접한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여기서도 찾아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교류가 증진되면 한국의 여러 문화와 기업들이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어서 한국의 로펌이 벨기에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Jozefien : 맞다. 특히 우리처럼 젊은 법대생들에게는 자국 로펌들만 있는 상황보다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좋을 것 같다. 만약 한국의 유명 로펌이 벨기에에서 뿌리를 내리고 변호사를 선발한다면 당장이라도 지원할 생각이 있다.

Ben : 확실히 양 국가 사이에서 거래와 교류가 증진하면 양국의 법조인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존 법조인들이 거대한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따른 토종 로펌의 위기의 도래를 걱정한다는 말에) 물론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20대인 젊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Jozefien의 말처럼 외국의 로펌이 진출하는 경우에도 현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이다.

Q4. 한국과 벨기에의 법조인들의 모습에 대한 생각 교류

Pieter : 한국에서는 젊은 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벨기에도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이고, 배심제가 아니어서 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판사는 경력이 20년 넘게 쌓인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주로 임관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각이 더 존중받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Felix :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혁신적인 판결을 내리기가 더욱 힘들다고 생각한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어른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완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Ben : 유럽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쪽 직업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법을 배운 만큼 법을 특히나 더 준수하는 것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Helen : 중국이 부상하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어의 중요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영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비즈니스에서 여기에 중국어까지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어를 안다면 좋긴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거나 현재 영어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에서 중국어로 바뀌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Pieter : Helen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벨기에에서 법대를 졸업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과 다르게 학점이나 스펙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어느 특정 과목에서 준수한 성적을 받았는지, 악기를 다루거나 스포츠 활동을 즐길 줄 아는지 등 학업 못지않게 학업 외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한다.

Q5. 벨기에 법대생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 주로 시내를 산책하며 나눈 이야기 정리

Pieter : Ghent 대학의 학생들은 매일 논다(웃음). 매일 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고, 시험이나 과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한다. 법과대학은 보이는 것처럼 시내 한 가운데 있다. 평소 공부하는 학교 도서관이 일찍 닫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할 때가 많다. 가끔 공원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들은 정말 집중력이 좋

은 학생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이다.

Felix : 1학년으로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한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왼쪽에 앉은 학생을 보고, 오른쪽에 앉은 학생을 보라. 너희 셋 중 단 한명만이 내년에도 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Universiteit Gent는 입학하기는 정말 쉽고, 학교를 다니기는 정말 편하다. 학비도 1년에 500~600유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입학이 쉽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900여명의 입학생 중 200~300명만이 2,3학년으로 진학하고 졸업을 하게 된다. 물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면 분명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Pieter : 지금 우리가 모두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여 벨기에의 거의 대부분의 법대생들이 연애를 하는 것이라고 알면 곤란하다. 우리 모두 올해 사귀기 시작하였고, 지난 5년간 연애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지나가다가 만난 친구들 4명도 모두 커플이었다.) 오늘은 정말 기적적인 날이다. 너희는 현재 Universiteit Gent의 법과대학 우리 학년의 모든 커플들을 다 목격하였다. 우리 말고는 전부 싱글 친구들이다.

Felix : 한국 대학생들의 소개팅 문화는 벨기에의 대학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특이한 것 같다. 여기서는 요즘 주로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와 사진을 올리고 현실에서 만나는 방법을 이용한다.

Jozefien : 사람을 만나는 방법 외에 다른 모습들은 한국의 법대생들과 이곳의 법대생들이 비슷한 것 같다. 우리도 법대를 다니는 지난 5년 동안 법 공부 외에 다른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다. 마치 법만 아는 바보가 된 느낌이다. 지금 시기가 또한 인생에 있어서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압박을 받는 것도 한국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Pieter : 문화나 시스템은 다른 점들이 많지만 한국의 법과대학의 학생들이나 벨기에의 법과대학 학생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다. 한국 음식을 언제나 그리워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꼭 좋겠고, 가서 한국을 구경시켜주면 좋겠다.

4. 후기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벨기에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접한 경험이다. 현재 한국의 법조인 양성체도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불과 3년이란 짧은 시간이 흐른 상태이다. 사회적으로 여러 비판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대륙법체계이고 일종의 로스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의 제도와 그에 대한 현지 법대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것은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지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하여 미래에 협력자의 관계에서 상호 발전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키우는데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벨기에의 법대생들과 여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연애

에 대한 이야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젊은 날의 불안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했지만 근본적인 고민과 행복의 주제는 다르지 않다는 친근함을 느꼈다. 교류와 협력의 첫걸음이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했을 때, 이번 인터뷰 진행을 통하여 서로 피부색도, 쓰는 언어도 다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써 파트너, 혹은 그를 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학생들과 Facebook을 통하여 교류를 하고 있고, 미래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IV.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견학

1.개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로서 EU안에서는 최고 재판소에 해당한다. 소재지는 룩셈부르크의 수도인 룩셈부르크 시이다. 지금까지 Yonsei EU Centre에서 진행된 field-trip은 주로 European Commission, Council, Parliamen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유럽사법재판소만 단독으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곳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또한 우리 팀은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는 유럽사법재판소를 직접 견학하기로 계획하였다.

2.연락 및 만남의 과정

벨기에 field-trip이 확정되고 우리는 유럽사법재판소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방문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유럽사법재판소는 individual visit와 group visit을 제공하고 있었다. group visit은 최소 3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2인으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2인만으로도 group visit을 할 수 있는지를 e-mail을 통해 질의하였다. 왜냐하면 group visit이 더욱 체계적이고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답변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일단 2명만으로는 group visit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individual visit에서 제공하는 공개방청의 일정 또한 아직 미정이라는 답변이었다. 이에 우리는 룩셈부르크 방문 일주일 전에 재차 e-mail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다. 벨기에에서 공식일정을 마치고 유럽사법재판소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6월 28일에 공개방청일정이 잡혀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당일 유럽사법재판소를 방문하였고, 예정되어 있던 공개방청 또한 참관하였다. 재판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정부를 원고로 하고 European Commission을 피고로 한 재판이었다. 재판의 주요쟁점은 불공정거래관행(unfair commercial practices)에 대한 EU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었다. 방청인들을 위해서 재판소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방청인들은 헤드폰을 통해 불어와 독일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재판장 오른편과 왼편에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통역사들이 원, 피고 측의 변론과 재판장의 재판진행과 판결을 통역해 주었다. 공개방청을 마치고 유럽사법재판소의 reception desk에서 관련 브로셔를 구할 수 있을까 하여 문의하였는데, protocol and information의 director가 직접 우리에게 관련 브로셔를 제공해주었다.

3. 유럽사법재판소와 관련하여

(1) 개관

EU에서는 유럽 의회나 유럽 각료 이사회, 유럽 위원회등의 기관이 법률을 제정·집행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로마 조약이나 마스트리흐트 조약 등의 EU의 기본 조약과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국내에 있는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여 적합성의 심사를 한다. 그런데 EU법에 대해서 가입국내의 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판단이 EU전체적으로 통일된 판단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로마 조약에 의해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EU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져 통일적인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입국이 EU조약·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 위원회의 청구를 받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위법 상태의 인정을 실시하거나 위법으로 여겨진 해당국이 대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의 벌금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EU법, 특히나 기본 조약 준종의 확보에 임하고 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협의 자문관 (Consultative Competence)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쟁권 (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 계쟁권 덕분에 회원국,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나 기업도 유럽 사법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또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기구의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유럽 연합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유럽 사법재판소는 회원국 법원으로 이송 후 유럽 연합 법의 해석과 유효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한다. 판결 사례가 풍부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일상생활에서 유럽 건설과 유럽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2)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성 재판관



총 3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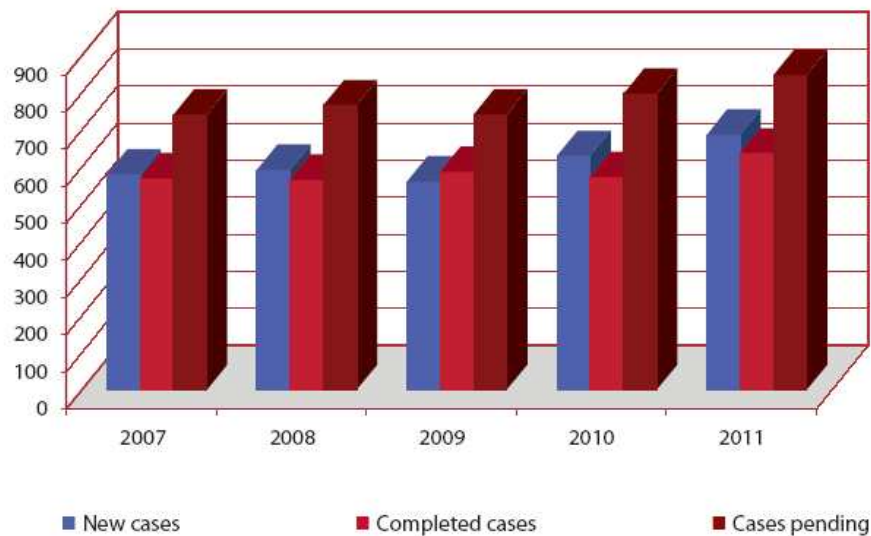
첫 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 U.Lohmus, J.Mazak, K.Lenaerts, A.Tizzano, V.Skouris, J.N.Cunha Rodrigues, J.C.Bonichot, J.Malenovsky, M.Safjan

두 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 A.Borg Barthet, E.Juhász, J.Kokott, A.Rosas, A.Prechal, R.Silva de Lapuerta, K.Schiemann, G.Arestis, M.Ilesic

세 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 V.Trstenjak, Y.Bot, E.Sharpston, A.O'Caohimh, E.Levits, L.Bay Larsen, P.Mengozzi, T.von Danwitz, A.Arabadjiev

네 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 C.G.Fernlund, P.Cruz Villalon, M.Berger, J.J.Kasel, C.Toader, D.Svaby, N.Jaaskinen, E.Jarasiunas, A.Calot Escobar

(3)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활동과 관련한 통계자료



	2007	2008	2009	2010	2011
New cases	581	593	562	631	688
Completed cases	570	567	588	574	638
Cases pending	742	768	742	799	849

새로운 사건들, 완료된 사건들, 미해결 사건들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이는 ECJ에서 발간하는 Annual Report에서 참조한 것이다. ECJ 홈페이지(<http://curia.europa.eu/>)를 방문하면 pdf파일로 Annual Report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 자료를 확인하면 더욱 자세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4) 유럽사법재판소 방문과 관련하여

A) 개인방문

개인 방문자로서 공개방청을 원하는 자는 유럽사법재판소의 방문자용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받기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개방청은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며 재판 시작의 15분 전에 입장하여야 한다. 방청석이 제한적이므로

로 착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방청 중에는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며 방문자 서비스 데스크에서 등록하는 것은 필수이다.

B) 그룹방문

그룹방문은 프로그램A와 프로그램B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A는 연구방문으로서 법적 전문가나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A는 구두변론을 포함하는 재판의 공개방청과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방문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로그램은 약 반나절동안 진행된다. 단 오전에만 진행된다.

프로그램B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사법재판소와 관련한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과 시민사회를 향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서비스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방문자들은 유럽사법재판소와 관련한 영상자료를 시청하게 된다. 이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이 있다. 프로그램B는 오전이나 오후에 2시간동안 진행된다.

C) 방문예약

개인방문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방청일정을 확인하고 당일 유럽사법재판소의 방문자용 출입구에서 신분확인이 끝나면 입장이 가능하다.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 그룹방문은 유럽사법재판소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유럽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주소: <http://curia.europa.eu/>)

4.소결 - 후기

비록 유럽사법재판소방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유럽연합에서의 법적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유럽사법재판소를 방문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리의 유럽사법재판소방문이 귀감이 되어 앞으로 Yonsei EU Centre에서 진행하는 field-trip에서 유럽사법재판소를 방문하는 팀에게 좋은 tip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첨언한다면 유럽사법재판소는 가입국에게 법적인 강제력을 부과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법의 준엄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바, 앞으로의 field-trip의 공식일정에 유럽사법재판소의 방문을 추가하는 것도 참가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식일정에 포함시킬 경우,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방문일이었던 2012년 6월 28일 우리 팀이 만난 Director는 11월 정도까지의 방문일정이 이미 계획되어있다고 귀뜸을 해주었다.

V. White & Case 방문 및 변호사 Craig Steinberg 씨와의 만남



1. 개요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다니는 우리 팀원들조차 대한민국의 로펌들 외에 세계적인 로펌들에 대하여 무엇이 있는지, 규모나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번에 현지 법조인과의 만남을 기획하면서 외국의 글로벌 로펌을 방문해보고, 그곳의 변호사들은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그 자리에 섰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미 현실로 다가온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미래 한국 법조시장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2. 연락 및 만남의 과정

2012년 1학기 성완지 학생은 법학전공수업 중 미국법개론을 수강하였는데, 수업을 담당하신 Karen Lee 교수님은 미국에서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신 경력을 가진 분이셨다. 그래서 교수님께 유럽 현지에 혹시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인을 활동하는 지인이 있으신지 문의를 하였고, 교수님은 파리에서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Craig Steinberg 변호사님과 만남을 주선해주셨다. Steinberg씨는 젊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흔쾌히 수락하셨고, 날짜를 잡아서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남을 이룰 수 있었다.

3. Craig Steinberg 씨와 그가 일하는 White & Case에 대한 소개

(1) White & Case LLP International Law Fi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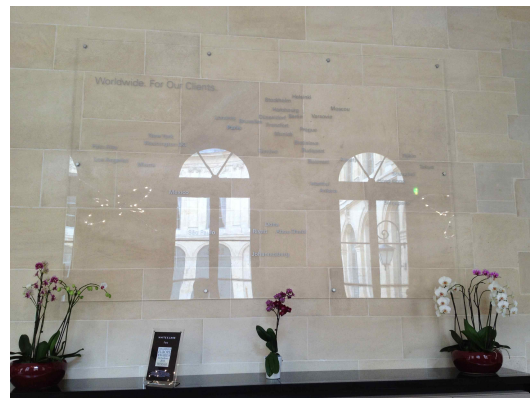
정보 http://en.wikipedia.org/wiki/White_%26_Case

홈페이지 <http://www.whitecase.com/>

White & Case는 1901년 뉴욕에서 설립된 로펌으로 현재 세계 26개국 38개의 사무실에서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의 세계 100개의 대형로펌 순위에서 2011년 11위에 선정되었고, 2010년 Top 10 US Firm, 2009년 Top 10 Global Firm에 선정되었던 세계적인 로펌이다. 특히 우리가 방문했던 파리 지점은 Chambers Europe에서 2012년 Law Firm of the Year in France로 선정되었고, 기타 수많은 도시, 수많은 분야에서 Law Firm of the Year에 꾸준히 선정되는 등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White & Case 파리지점 로비 모습



(2) Craig Steinberg 씨의 이력

Profile 주소 : <http://www.whitecase.com/Attorneys/Detail.aspx?attorney=2374>

Steinberg 씨는 미국태생으로 뉴욕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2006년에 Los Angeles에서 처음 White & Case에 합류하여 2008년 파리 지점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이다. 현재 주로 에너지와 항공 분야에서 전세계에 고객들을 상대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검사라는 특별한 이력과는 다르게 점심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최고의 로펌에서의 변호사로써의 삶과 국제적인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4. 인터뷰 내용 정리

Q1. 만나서 반갑습니다. Karen Lee 교수님 소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성완지, 이태훈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펌 중 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신데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되셨는지, 현재 일하시는 분야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Craig Steinberg(이하 Steinberg) :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먼 곳에서 오느라 수고 많았고 이곳에 있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길 바란다.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Karen과는 다르게 나는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다. 오늘 프로필에 나와있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 변호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나는 처음부터 변호사로 바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 까닭은 검사가 되어서 법정에 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인턴도 전부 그 분야와 관련있는 곳에서 경험하였고, 검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변호사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크지 않은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후 White & Case로 옮기게 되었다. 더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성완지 : 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 결과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눈 것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는 여전히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쪽의 변호사 업무에도 관심이 있고, 특히 유럽 스포츠시장이나 할리우드 등의 산업 뿐만 아니라, 변호사님처럼 세계적인 로펌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훈 : 저는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법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거래법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고, 미래에 인권 분야와 국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Steinberg : 좋다.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동기부여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차차 이야기 하겠지만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변호사의 삶은 매우 힘들기만 한 삶이 되기 쉬운 것 같다. 난 개인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재판장에서 배심원들을 사로잡고 설득하는 모습을 동경하여 검사활동도 하게 되었었다. 그 후 개인적인 사정에서 변호사로 옮긴 후에는 법정에 나가는 일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나는 에너지와 항공산업 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내 고객들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 퍼져있고, 파리에 서 일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다.

Q2. 초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삶은 어떤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Steinberg :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일을 많이 한다. 너희가 로펌에 들어오면 알겠지만 너희

가 가진 모든 것을 소진시키려 들 것이다. 내 삶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선 아침 9시 경 출근을 한다. 그리고 퇴근은 보통 새벽 1시~2시 쯤 하고, 다시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는 삶이 반복된다. 주말은 보통 없다고 보면 되고, 아마 6주에 한번 정도 주말에 집에서 쉰다. 평소 퇴근을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세계 곳곳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서 모든 시간에 시장이 열리고, 항상 답해줘야 할 이메일이 있어서 집에 가더라도 이메일을 처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실제로 Steinberg 씨는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핸드폰에 신경을 쓰셨다.)

이게 동기부여가 중요한 까닭이다. 대형로펌에서의 변호사로 산다는 것은 결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다. 돈은 잘 벌지만 돈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는 일이 많다. 이 일을 하고 싶다면 꼭 이런 진실을 알고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변호사이시다면 그것을 잘 아리라 믿는다.

Q3. 그렇다면 이런 세계적인 로펌에 변호사로 입사해서 일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또한 로스쿨을 나와보셔서 알겠지만 법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항공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teinberg : 내가 프랑스에서 일한지 5년이지만 내 프랑스어 실력은 절대 법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 또한 내가 프랑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미권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대부분 준거법을 미국이나 영국을 잡기 때문에 영국 혹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는 것은 국제적인 로펌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나는 California주, New York주, New Jersey주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학부나 로스쿨을 나오더라도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로펌에서 일하는 모든 변호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 그 전문 분야는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다. 나의 경우도 에너지나 항공에 조예가 있어서 로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쪽에 능통한 것이 아니었고, 거의 모든 일들을 로펌에서 배웠고, 또한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스쿨에서의 성적이다. 최고의 로펌들은 Top 5%, 혹은 Top 10%까지도 뽑았는데 Top 5%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펌에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거의 그럴 필요가 없고, 로스쿨에서의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로스쿨에서 방학을 이용한 인턴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로펌도 괜찮지만 한국의 우수 글로벌 기업의 해외법무팀에서의 인턴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서양에서는 주변의 인맥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고, 또 이메일로 이력서와 더불어 추천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인턴활동의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을 추천한다. 인턴의 기회를 잡아서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인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다.

Q4.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에서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의 법률시장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조인인 어른들은 White & Case와 같은 대형 로펌들의 진출에 따른 국내 로펌들의 고전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Steinberg : 분명 개방 초반에는 한국에서 기득권을 가진 로펌들의 영향으로 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형로펌의 시장진출 및 영역 확장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결과는 비슷했다.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현지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도 늘 있었던 일이다.

Q5.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에 유럽법학회가 설립되어서 이제 만들어가는 중인데, 학생들과 저희 둘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Steinberg : 천만이다. Karen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 개인적으로 유럽법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언을 하긴 힘들지만 위에 로스쿨생들에게 했던 조언과 더불어 판례 스터디를 하는 것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너희 둘에게도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항상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인턴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진로에서 결정되는 일이 있거나 하면 꼭 이메일로 알려주고, 물어볼 것이 있거나 말할 것이 있다면 정말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라. 언제든지 환영이다.

5. 후기

세계적인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난 것은 우리 둘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파리에서도 법원이 위치한 Place de Vendome에 있는 White & Case에 직접 방문한 것은 미래에 이곳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와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펌이 많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곳의 수천명의 변호사들이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Steinberg 씨가 강조한 동기부여의 측면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험이었다. 앞으로 한국의 법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Steinberg 씨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꿈이 더욱 커진 느낌이 들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욕이 생겼다.

VI. 마치며

한국의 법학도로서 이번 방문은 즐겁기도 하면서 유익한 여행이자 조사였다. 한국과 유럽 연합은 최근 FTA를 체결한 바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법조시장 역시 개방되어 외국 굴지의 로펌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예비 법조인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 실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었고, 이번 조사는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 페이퍼자료나 단순 통계자료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의 법조인들과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길은 인터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사가 갖는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

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로스쿨 학생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 Yonsei EU Centre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